파주와 율곡학(2) : 송익필 스토리텔링

안유경(철학박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 송익필의 탄생과 불우한 환경

강민우: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덕대학교 자동차과 1학년에 다니다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강민우 상병입니다. 우리 부대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이이(율곡) 선생이 강릉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이는 1536년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부 죽헌동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이이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던 중 이이 선생과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성혼(우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여 이이를 알려면 성혼을 알아야 하고 성혼을 알려면 이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절친한 친구가 바로 송익필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솥을 떠받치는 세 발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 송익필 선생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드리고, 많은 배움을 얻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송익필: 저도 강민우 학생을 만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무척 기쁩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부담 없이 말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우: 자유로를 타고 일산을 지나면 오른쪽 멀리에 나지막하게 누운 산을 발견합니다. 파주출판문화단지 뒤쪽의 심학산(尋鶴山)입니다. 이 산 중턱에 최근 음식점이 줄줄이 들어서고 둘레 길까지 생겨나 많은 사람이 즐겨 찾습니다. 심학산 높이는 200m가 채 안 되는데 주위에 큰 산이 없어 멀리서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로 한강 하류의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구봉산(龜峰山)입니다. 이 산을 자유로에서 보면 거북(龜) 모양을 하고, 서쪽 봉우리(峰)도 거북 머리와 같아서입니다. 이 산 이름이 심학산으로 바뀐 것은 조선 숙종 때입니다. 숙종이 애지중지하던 학 두 마리가 궁궐을 도망쳐 나간 것을 여기서 찾았다고 해서, 그 후로 학(鶴)을 찾은(尋) 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도 구봉산 이름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이 산 밑에 살았던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호가 '구봉'이기 때문입니다. 송익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민우: 먼저 송익필 선생의 개인적 약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이름은 송익필(宋翼弼)입니다. 저는 1534년 2월 10일에 아버지 송사련과 어머니 연일 정씨(延日鄭氏) 부인의 4남 1녀 중, 3남으로 한성부(지금의 고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형제 이름은 모두 '필'자 돌림입니다. 첫째 장남은 송인필(宋仁弼)이고, 둘째 차남은 송부필(宋富弼)이며, 셋째인 저는 송익필이며, 넷째 아우는 운곡거사(雲谷居士) 송한필입니다.

강민우: 4남 1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나신 거군요. 선생님의 가계에 대해서도 마저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가계는 여산(礪山) 사람입니다. 10대조인 송송례(宋松禮)는 고려 원종 때 상장군·추밀원부사·첨의중찬을 지낸 명문가로, 원나라의 고려 침공 당시에 무신 집권 세력인 임유무를 제거하고 고려 왕권을 안정시킨 공을 세워서 정렬공의 시호를 받습니다. 그를 도왔던 두 아들 송염(宋琰)과 송분(宋玢)이 사료에 보입니다. 이러한 가계는 이후로 크게 현달하지 못하다가 고조부인 송근(宋根), 증조부인 송소철(宋小鐵)을 지나서 조부인 송린(宋璘)이 잡직의 벼슬을 지내게 됩니다. 할아버지 송린은 송승산(宋承山)의 서자로,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아버지 송사련 때에 와서 경기도 고양(高陽)으로 이주하여 대대로 살다가 고양의 구봉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부친 송사련에 이르러 집안이 매우 융성해졌다지요.

송익필: 아버지 송사련은 관상감 판관의 관직에 올랐고, 신사무옥(辛巳誣獄, 1521) 이후에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인 첨지 중추부사 절충장군의 벼슬을 지냅니다. 아버지 송사련에 와서 비로소 집안이 번창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신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민우: 그 내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할아버지 송린은 황해도 배천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안당(安塘) 집안의 노비이자 그의 이복 여동생이 되는 감정(甘丁)과 결혼하여 송사련을 낳습니다. 감정은 안당의 아버지 안돈후(安敦厚)와 그 집안의 노비였던 중금(重今)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할아버지 송린은 잡직을 지내고 관상감 판관에 오르며, 후일 아들 송사련도 외가인 안씨 집안의 도움으로 관상감 판관을 지내며 안씨 문중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보게 됩니다.

강민우: 안씨 집안과 좋은 관계를 지내던 송사련은 뒷날 '신사무옥'을 일으키는 반역을 하였다지요.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송익필: 그 배경은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정치적 배경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왕조의 건국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훈구세력과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던 지방의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게 되어 사화(士禍)가 거듭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안당은 중종 초기 사림의 대표적 인물로서, 도학의 시조로 불리는 조광조(趙光祖)를 천거합니다. 안당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등 사림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사림의 기대가 크던 인물입니다.

강민우: 기묘사화(己卯士禍)는 1519년(중종 14) 11월 조광조·김정·김식 등 신진사류가 남곤·심정·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안당이 사림의 편에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당을 제거하고자 신사년(辛巳年, 1521) 9월에 사림들을 미워하던 훈구세력인 심정(沈貞) 등은 '안당이 국사를 그르친 간신의 괴수'라 하여 관직을 삭탈합니다. 이어서 안당의 아들인 안처겸(安處謙) 등을 탄핵하여 각각 죄를 얽어 관직을 삭탈합니다. 그해 10월에 안처겸은 모친상을 당하여 처가에 있으면서 이웃에 사는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함께 담론하다가 "심정과 남곤의 무리를 제거한다면, 나라도 유지하고 사림도 보전할 것이다"라는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송사련도 같이 있었는데, 이에 송사련이 안처겸의 말을 빌미로 하여 그를 역모의 주동자로 만듭니다.

강민우: 이 일로 '신사무옥'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신사무옥은 무옥(誣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년(1521, 중종 16)에 발생한 무고 사건입니다. '무고'는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한 것을 말합니다. 1521년 안처겸 등이 기묘사화를 일으켰던 심정·남곤을 제거하고 경명군(景明君: 성종의 서자 왕자)을 추대할 것이라는 고발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송사련입니다. 송사련의 고발 이후 임금의 특명에 따라 죄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결국 안처겸과 그의 아버지 안당, 동생 안처근(安處謹) 등 10여 명이 처형되고, 약 백여 명이 유배됩니다. 이 사건은 신사무옥 외에 '안처겸 옥사'라고도 불립니다.

강민우: 안당의 아들을 고발한 송사련은 그 상으로 당상관인 절충장군의 직위에 오르게 되어 여생을 마칠 때까지 풍족하게 살았다지요. 후일 훈구세력이 축출되고 사림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왔을 때는, 송사련은 이미 죽어 없어지고 그의 사림에 대한 죄과는 고스란히 식솔들에게 남겨집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 송사련은 자식처럼 온정을 베풀어 주고, 벼슬도 마련해주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까지 맡겼던 외가의 집안을 고발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익필: 안당의 부친인 안돈후는 부인이 죽자, 그 형의 시녀였던 중금(重今)과 결혼하여 얻은 딸 감정과 할아버지 송린이 결혼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송사련은 외할머니인 중금이 천민이고, 모친인 감정 또한 그 당시 모계법(母系法)에 따라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송사련 또한 천민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며 사람들의 뜻을 잘 헤아렸던 송사련은 출세욕과 더불어 신분 제약을 벗어나고자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그럴듯하게 속여서 고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강민우: 그렇지만 송사련은 여생을 마칠 때까지 풍족하게 살았으니, 송익필 선생도 생애의 전반기는 풍족하였을 듯합니다.

송익필: 저 생애의 전반기에는 신분적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구속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과 교류하여 4남 1녀 가운데 딸은 임금의 친척인 한산수(漢山守)와 혼인합니다. 저 또한 명문가인 창녕 성씨와 혼인하여 큰아들인 취방(就方)을 낳고, 후일 작은 부인인 수원 최씨에게서 취대(就大)와 취실(就實)을 낳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형제들은 모두 재주가 출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송익필 선생과 아우 송한필(宋翰弼)은 학식과 문장이 더욱 뛰어났다지요. 선생님은 7~8세부터 한시를 지어 이름이 나기 시작하였고, 후일에는 그 당시 이이·최립·백광훈·윤탁연·이산해·이순인 등과 함께 8대 문장가로 명성이 드높았다지요.

송익필: 넉넉한 가세 속에 어려움 없이 학문에 정진하던 33세(1566) 무렵, 저의 신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훈구세력들이 몰락하고 사림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전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송사련의 '신사무옥' 고발로 삭탈되었던 안당이 복권되고, 이어서 1575년에는 안당에게 정민(貞愍)의 시호가 내려집니다. 이와 동시에 저의 가문에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해에 아버지 송사련은 죽지만, 다시 11년 뒤인 1586년에는 안당의 아들인 안처겸 등이 무죄로 밝혀져서 복권되고, 송사련의 관직이 삭탈 됩니다.

강민우: 이러한 정치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자, 선생님은 부친의 허물에 대한 사림들의 미움을 뒤로 하고, 고양의 구봉산(현재의 파주시 심학산) 아래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되었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성혼·이이·정철 등과 친구로서 변치 않고 우정을 맺어 왔습니다. 50세 때(1583)에 동서의 당쟁이 심해져서 박근원·송응개·허봉 등 동인들이 당시의 병조판서였던 이이를 탄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저는 성혼과 함께 이이를 구원하는데, 이로써 동인들이 귀양을 가는 계미삼찬(癸未三竄)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민우: '계미삼찬'은 1583년 동인 계열의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漑)·허봉(許篈) 등이 이이를 탄핵하려다 모두 유배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익필: 다음 해(1584)에 이이가 죽자, 동인들은 대사간 이발과 대사헌 이식을 움직여서 심의겸을 논죄할 때 "이이와 성혼은 심의겸과 생사를 같이하는 친구로서 조정을 어지럽힌 장본인"이라고 탄핵합니다. 이때 이이의 제자 이귀(李貴)가 스승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는데, 그 상소문의 문장과 논리가 정연해서 이귀가 지은 것으로 보지 않고 제가 기초한 것이라 간주하여 동인들이 저를 '서인의 주모자'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동인들은 안당의 집안 후손을 부추겨 송씨 집안들이 안씨 집안의 노예라는 구실을 붙여서 선생님의 집안을 천민으로 바꾸려는 소송을 내게 하였군요.

송익필: 결국에는 저의 집안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이는 동인들이 이이와 성혼을 공격하다가 이이가 죽자, '서인의 주모자는 송익필이다'라고 하여 그 화를 저에게 전가하고 당쟁의 희생물로 삼고자 한 데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그리하여 53세 되던 해(1586)에는 안처겸 등의 '신사무옥'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아버지 송사련은 관직이 삭탈됩니다. 마침내 저의 집안 일족 70여 인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하는 지경에 이르고, 저는 정철·김장생 등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하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강민우: 또한 56세 되던(1589)에는 '정여립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과 아우 송한필 형제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지요.

송익필: 정여립의 난으로 발생한 '기축옥사'로 인해 권력을 잃게 된 동인들이 서인에 대한 적대 감정에서 그 화의 대상으로 저의 형제를 지목합니다. 송익필 형제가 천민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불만과 원한이 쌓여서 정여립과 연계하여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조헌(趙憲)이 또다시 송익필 형제의 무죄를 상소하자, 더욱 동인들의 화를 사게 되고, 마침내 선조 임금은 격노하여 1589년에 체포령을 내립니다. 저는 정철의 도움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피신하고 있다가 한양으로 올라와서 왕명으로 아우와 함께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57세 되던 1590에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강민우: '정여립 사건' 즉 기축옥사는 1589년 전주에 사는 정여립이 서남 지방에서 일시에 거병하여 서울을 침범한다는 모반입니다.

송익필: 58세 되던 해(1591)에는 정철이 왕세자 책봉 문제에 연루되어 좌의정에서 실각하고 유배됩니다. 이와 연루하여 10월에 북인 일파인 정인홍(鄭仁弘) 등이 사헌부 간관을 사주하여 임금에게 저의 죄를 주청하여, 형조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12월에 저는 평안도 희천(熙川)으로, 아우 송한필은 전라도 이성(利城)으로 유배됩니다. 다음 해인 1592년에는 귀양지인 희천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인근의 명문산(明文山)으로 피신하였다가, 60세 되던 1593년 9월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강민우: 그해 12월에 친구인 정철이 죽고, 1594년에는 둘째 형 송부필과 동생 송한필이 잇달아 죽게 되는군요.

송익필: 저는 63세 되던 해부터는 만년을 충남 당진 면천(沔川) 마양촌(馬羊村)의 첨주 김진려의 집에서 우거하게 됩니다. 1598년에는 이이와 정철에 이어 성혼이 죽게 되고, 아내 성씨마저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66세 되던 해(1599)에 아들 취대에게 성혼과 이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글을 정리하게 하여 「현승편」을 엮고, 8월에 면천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당진군 현북면 원당동에 장사 지냅니다.

강민우: 그러다가 1910년에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고 '홍문관 제학'에 추증됩니다. 근래 들어 1991년 송익필 선생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전해지는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183-3번지 유역의 심학산 자락에는 권태훈(權泰勳)에 의해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2) 송익필의 가족 관계

강민우: 아버지 송사련과 안당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송익필: 안당은 도학 정치의 종주인 조광조와 김안국(金安國) 등을 추천하고 현량과를 실시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총명하여 아들 안처금(安處謹)·안처겸(安處謙)·안처함(安處誠)이 일시에 현량과 출신이 됩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의 도학 정치가 좌절되자 그를 지지하던 안당이 파직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반대 세력인 남곤·심정 등을 비판합니다.

강민우: 현량과(賢良科)는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하여 실시한 인재 추천제도입니다. 학문과 덕행,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임금이 직접 면접으로 선발하여 관료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듬해 현량과는 폐지되지만, 훗날 과거 급제자가 아니더라도 학문과 덕망으로 사람을 천거하는 산림 등의 기용으로 나타납니다.

송익필: 아버지 송사련은 안당의 여러 아들들이 친형제처럼 대하고 집안일을 맡기는 등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출세욕으로 그의 처남인 정상과 안처겸 형제를 고발하여 '안처겸의 옥사' 또는 '신사무옥'을 일으킵니다. 그 공으로 송사련은 당상절충이 되고 시위 호종으로 지내다가 80이 넘어 죽습니다. 이로써 송사련의 여러 아들은 사대부 집안과 혼인하게 되고, 딸은 임금의 친족에게 출가하는 등 집안이 영화를 누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송사련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으나, 외할머니 감정이 첩의 소생인 서자도 아니고 계집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를 겪어야 했을 듯합니다.

강민우: 사림의 은인이요 보호자였던 안당 일가가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니, 송사련 일가는 자연 사림의 증오 대상이 되었군요.

송익필: 훈구세력이 주도하던 정계도 문정왕후가 죽자(1565) 붕괴되고, 사림들이 정계를 장악하자 사화에 희생된 인물들을 복권합니다. 이로써 1566년 안당에게 직첩이 주어졌고, 1575년에는 '정민'이라는 시호가 주어집니다. '시호'는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말합니다.

강민우: 송사련의 아들 인필(仁弼)·부필(富弼)·익필(翼弼)·한필(翰弼)은 모두 걸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선생님과 아우 한필이 특히 뛰어났다지요.

송익필: 저는 7~8세에 이미 글로써 남을 놀라게 하였고, 성장하여서는 아우 한필과 더불어 소과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과에 응하자, 사관 이해수가 신분문제를 제기하여 탈락시킵니다. 이에 저는 고양 구봉산 아래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 전력하여 김장생 등을 기르며, 특별한 사승이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이룹니다. 이에 사람들이 저를 구봉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사변적인 이기론보다 실천궁행을 통하여 본원을 세우려는 예학에 힘을 썼다지요. 토정비결을 지으신 이지함(李之菡) 같은 분도 선생님을 통하여 학문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동료로 지내도록 했다지요. 선생님의 주변 인물로는 이이·성혼·정철·이산해·서기·조헌·김장생 등이 있습니다.

송익필: 정철과 이산해는 당대의 재상이었으나, 모두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시켜 보호

해 준 분들입니다. 제가 동인에게 박해를 받은 것은 정철과 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기(徐起)는 같은 서얼 출신의 학자로서, 저의 지략이 제갈량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 조헌(趙憲)은 저를 당대의 장수가 될 만한 훌륭한 인재로 천거합니다. 김장생은 13세에 저에게 와서 『근사록(近思錄)』을 배워 학문의 기초를 닦습니다. 특히 예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 김집(金集)과 김반(金槃)을 모두 저에게 수학시켜 기호예학의 종장이 됩니다.

강민우: 『근사록』은 남송의 주희와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편찬한 것으로 송대(宋代) 성리학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북송 시대 대표적 사상가인 주돈이·장재·정호·정이의 저술과 어록(語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14분야로 나누어 집대성한 것으로 정주학의 입문서입니다. 일찍이 주자는 "사자(四子: 논어·맹자·대학·중용)는 육경(六經: 시경·서경·역경·춘추·주례·예기)에 오르는 사다리요, 『근사록』은 사자의 학문에 오르는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이 사후에, 학문과 경세 등 실제로 기호학파의 종장에 임함으로써 서인의 주모자로 지목되었지요.

송익필: 이에 이발·백유양 등 동인의 원한을 사니, 이들은 안당의 서자 아들 안정란을 통하여 신분 문제를 제소하게 하여 저의 신분을 다시 천민으로 되돌립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정철·이산해 등의 보호를 받아 목숨을 보전합니다.

(3) 송씨 집안과 안씨 집안의 소송

송익필: '사노비 송익필 형제를 체포하라!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숨은 죄인을 당장 잡아들이라'라는 임금의 전교는 저의 형제에 대한 최후통첩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집안에 소송이 일어난 것인가요.

송익필: 때는 1589년(선조 22) 12월에 송씨 가족 모두 안씨 집안의 노비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양반으로 살아온 송씨 가족은 갑자기 사노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죽기 살기로 도망쳐 숨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화가 난 안씨 집안은 추노를 고용하여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로 갈라진 두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노비 소유권 문제지만, 실제는 3대에 걸친 안씨 가문의 복수극입니다.

강민우: 원고 안씨 집안에 따르면, 송익필 선생의 할머니인 감정은 <노비를 면제해 주는>면천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에 그 소생은 모두 자신들의 노비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외아들 송사련은 송익필 등 4남 1녀를 낳아 소송 당시 그 자손은 70여 명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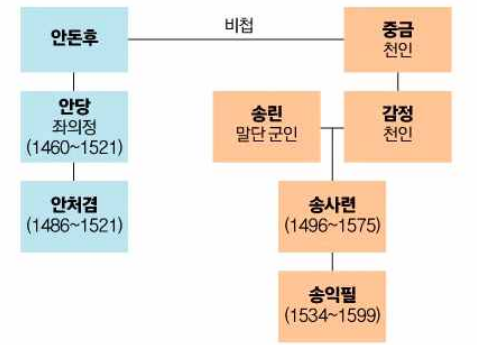
송익필: 피고 송씨 집안은 할머니 감정이 105년 전에 이미 양인이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1481년 장예원 입안' 문서를 제시합니다. 원고 안씨 집안은 '감정이 노비이지만 재산을 나눌 때 노비 한두 구(口)를 주어 물 긷는 노고를 면케 하라'는 증조 안돈후의 유서를 내보입

니다.

강민우: 장예원은 1467년(세조 13) 정월에 노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중앙관청의 하나입니다. 다툼의 사안은 노비 감정이 양인(良人)이 되는 절차를 밟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있는 듯합니다.

송익필: 할머니 감정은 안씨 집안 외증조할아버지 안돈후와 여종 중금(重今)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녀는 안씨 집안의 주선으로 양인 <할아버지>송린과 혼인하여 <아버지>송사련을 낳습니다. 노비종모법에 따르면, 감정은 안가 소유의 노비이므로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집니다. 외증조할머니 중금의 신분이 본래 노비였으므로 신분제에 따라 그의 딸 감정은 안당 가문의 노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정이 평민 송린과 혼인하여 송사련을 낳았으니, 송사련의 신분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안당 가문의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송사련은 안당의 도움으로 천한 신분을 면하고 관직에 올라 잡직인 관상감 판관을 지냈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양반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양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흥 안씨, 여산 송씨 가계도



강민우: 종모법(從母法) 또는 노비종모법은 조선시대 세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노비 제도로서, 양인 남자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모계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하는 신분법입니다. 노비 자녀의 신분이 모계 혈통을 따른다는 제도입니다. 결국 감정이 노비이므로 감정과 양인인 송린 사이에서 태어난 송사련도 노비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원고와 피고는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로 처지는 다르지만, 촌수로는 6촌입니다. 원고는 안돈후의 자손 28명이고, 피고는 감정의 자손 68명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감정은 50년 전에, 그 아들 송사련은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양측은 문서의 진정성과 소멸시효 등을 따지며 법적 논증을 펼칩니다.

강민우: 어떤 이유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나요.

송익필: 저의 외증조할아버지 안돈후는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안향(安珦)의 직계 후손으로,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아버지입니다. 안돈후는 부인이 죽자, 그의 형 노비와의 사

이에서 딸 감정을 낳고, 그 딸은 평범한 군인인 송린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의 아버지 송사련입니다. 그러니 송사련의 노비 출신 어머니와 안당은 배다른 남매간입니다.

강민우: 안당은 송사련을 서얼이라 차별하지 않고 그가 정5품 벼슬인 관상감 판관까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지요. 송사련은 서얼 신분에도 26세의 젊은 나이로 정3품 당상관이 되었고요. 그의 출세는 안당과 안당의 아들 안처겸 형제를 역모죄로 고발하여 얻은 대가라고 한다지요.

송익필: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이자 자신과는 외사촌 형제인 안처겸·안처근 형제를 역모죄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사화를 주도한 남곤·심정을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비판했는데, 이에 송사련은 곧바로 처남 정상(鄭瑺)을 대동하고 대궐로 들어가 안처겸을 고발합니다.

강민우: 적자와 서자를 크게 따지지 않은 안당 부자는 피를 나눈 서얼 조카 송사련을 내 가족처럼 챙기고, 또한 일 처리에 밝은 송사련은 안씨 집안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도맡아 왔기에 그의 고발은 더 설득력을 얻었고요. 송사련의 고발이 있은 지 닷새 만에 안처겸 형제 등 10여 명은 처형되고 안당은 목매어 죽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노비는 모두 송사련이 몰수합니다. 또 송사련의 벼슬도 정3품 당상관에 오릅니다. 고발자인 송사련은 네 임금을 거치며 40년간 당상관을 지키다가 천수를 다하고 80세로 세상을 떠났다지요.

송익필: 이런 일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으므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상관 자제로 유복하게 성장합니다.

강민우: 송사련에 대한 당시 여론은 “나랏일에 격분하여 한 말을 고발하여 재앙을 꾸며서 옥사를 얽은 사건”, “남곤과 심정이 송사련을 사주하여 꾸민 사건”이며, 그 대가로 송사련이 얻은 것은 관직과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구인 성혼도 송사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지요. 송사련의 장사 때 이이가 신주를 써준 일을 못마땅해하자, 이이는 성혼에게 “상주들의 간절함에 어찌 못해 응한 것이다”라고 고백했다지요. 송익필 선생의 친구인 성혼과 이이마저도 송사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듯합니다. 그러다가 명종 말엽에 사림파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 화가 선생님께 미치게 된 것이죠.

송익필: 안당 일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공론이 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안당 집안에 잘못이 없음이 밝혀지면서 신원이 복권되고 임명장도 주어집니다. 반면 저의 일가에게는 재앙이 되어 재산은 안당 집안에 환수되고, 집안 식구들은 안당 일가의 노비로 전락합니다. 이때 저는 동인 이산해로부터 율곡을 비난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지만, 이를 거절하자 이산해의 분노를 삽니다. 이로써 저는 동인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강민우: 송사련은 80세로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부귀를 누렸지만, 신분과 도리를 중시하는 선비들은 송사련을 심히 비난하였겠어요.

송익필: 서인의 반전은 곧이어 터진 정여립과 관련한 ‘기축옥사’로 이루어집니다. 기축옥사

로 1,000명 가까운 동인과 그 관련자가 희생되면서 동인은 서인과 경쟁에서 대패합니다. 이 옥사를 진행한 사람은 정철(鄭澈)인데, 정철의 배후에 송익필이 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 원한이 옥사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당쟁의 기획자, 노론 집권을 설계한 책략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강민우: 아버지 송사련의 권세와 재물에 힘입은 송씨 집안의 자식들은 소위 고급 교육을 받아 양반의 사위가 되거나 종실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멸문의 화를 당한 안씨 집안의 가족들은 고통과 울분의 세월을 보내야 했겠군요.

송익필: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은 할머니 감정을 사이에 두고 65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안씨 집안사람들은 조부 안당과 부친 안처겸과 숙부에게 역모죄를 걸어 죽이고 멸문의 화를 입힌 원수를 응징하는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고령이던 안당의 손자이자 안처겸의 아들인 안로는 재판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내 윤씨가 바통을 넘겨받아 승소를 끌어냅니다.

강민우: 안씨 집안 자손들은 70여 명의 노비를 원하기보다 선조의 억울함을 공식화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한 것이겠지요. 소장이 접수되던 날 가족 대표로 법정에 선 송익필 선생은 소멸시효 등의 국법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변론하였다지요. 8~9세에 이미 천재로 소문나고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지식을 꿰뚫고 있는 선생님께서 행한 변론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도 재판관은 '순리를 거역한다'라며 56세의 대학자에게 곤장을 매우 쳐서 내보냈다지요.

송익필: 저에 대한 평가가 냉혹했습니다. 재판관의 입에서 '법리'가 아닌 '순리'가 나온 것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원수로 삼아 공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곤장을 맞고 내쳐진 저에게 6개월간의 법정에 몸을 드러내는 대신 막후에서 소송을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서인 측에서는 제갈량이라 부르지만, 동인 측에서는 모사꾼이라고 했다지요. "그의 처신이나 행적을 보면 재주나 기예는 월등하지만, 학문은 그저 '스스로 잘난 체하고 과장하여 떠벌리는 말'을 늘어놓는 데 불과하다"(『택당별집』 권15)라는 당대의 평가도 있다지요. 또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부친의 악업에 엎드려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송익필 선생의 학문은 빛나는 업적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송익필: 저의 복권은 제가 죽은 지 24년 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조반정은 사실상 서인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게다가 인조반정의 두 주역 중 하나인 이귀(李貴)는 저의 제자이며, 또 다른 주역인 김류는 저에게 잠시 글을 배웠고 그의 아버지 김여물도 저의 제자입니다. 더욱이 인조반정의 명분이 영창대군을 죽게 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한 광해군의 패륜 행위를 바로잡으면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법이 강조되며 저의 예학도 주목받습니다.

강민우: 인조반정은 1623년(광해군 15) 이귀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능양군 이종)를 왕으로 옹립한 정변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산림에 있으면서 서인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김장생은 인조에게 건의하여 자신의 스승인 송익필 선생을 복권시켰던 것이군요.

송익필: 또 김장생의 제자 송시열은 송준길(宋浚吉)과 의논하여 저의 묘비명을 짓고 비석을 세웁니다. 그 후 영조 때는 정5품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고, 급기야 1910년에는 종2품 홍문각 제학에 추증되면서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이는 조선왕조가 망하기 한 달 전 일이니, 노론이 앞세운 예학이 권력투쟁의 선봉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강민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소송을 진행할 당시 선생님은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봉'으로 불리는 그는 고양 구봉산(현재 심학산) 아래에 터를 잡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타난 13세의 김장생을 비롯하여, 그 문하에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죠. 한 살 아래의 성혼과 두 살 아래의 이이와는 학문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였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 『삼현수간(三賢手簡)』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송익필 선생은 서인의 대부이자 학술계의 리더이며 정계의 멘토였습니다. 게다가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기를 죽이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모두가 우러러보던 그가 60세 가까이에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선대의 악업(惡業)이라고 말합니다.

(4) 송익필의 문학과 직(直)의 철학

강민우: 선생님의 학문은 예학에 힘써 기호 예학의 비조가 되었다지요.

송익필: 저의 불운에도 불구하고 10권이나 되는 문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서 예학을 전수받은 기호 예학의 종주인 김장생과 그 후손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의 학문적 공이 인정되어 사헌부 지평으로 증직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빼어난 자질, 해박한 학문, 꿰뚫어 보는 식견, 정미한 분석력은 성리학자로서 천부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선생님의 학문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태극문답(太極問答)」과 「현승편(玄繩編)」에 있다지요.

송익필: 「태극문답」은 난해한 성리학을 81항에 걸쳐 문답식으로 간명하게 해설하여 후학의 이해를 도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태극을 리의 존칭으로 보아 유학을 옹호하고, 도교와 불교를 기로 보아 배척합니다. 또한 「현승편」 상·하권은 이이·성혼 등과 왕래한 서신을 모아 놓은 것으로써 이들의 성리학적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황처럼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단은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와 기를 겸하여 정의 전체를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칠정포사단(七情包四端說)'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실재하는 정은 칠정 하나이며, 그 가운데서 선한 부분만을 말한 것이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강민우: 이황과 이이에 의해 전개된 이기심성론이 사변적이고 주지적인 데 반하여, 선생님은 이론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예학을 발전시켰던 것이지요.

송익필: 이이가 리와 기를 하나로 보아 그의 이기심성론을 전개한 것과 달리, 저는 예를 강조한 나머지 리와 기가 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리는 선하고 기는 악한 것으로 보아 기를 리에 종속시킵니다. 이에 리와 기를 성과 정,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악의 근원이 되는 기(또는 정)를 절제하여 리(또는 성)로 환원하기 위하여 기가 발하여 중절하는 화(和)를 중시합니다. 이에 저의 학문은 행위에서 '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예학에 힘씁니다. 이황이 실천을 중시하여 경(敬)의 철학을 전개한 반하여, 저는 실천을 중시하여 직(直)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직'이란 무엇입니까.

송익필: '직'은 하늘이 부여하고 사물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하는 리와 사물이 부여받은 성의 내실을 '직'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직'의 실천입니다. 학문에 있어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존심(存心)과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省察)도 '직'의 실천으로 봅니다. '직'은 천지와 고금을 일관하는 것으로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어야 하며, 인간 윤리의 근본이 되는 오륜(五倫)도 '직'으로 봅니다.

강민우: '오륜'은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친구 간의 관계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실천 덕목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실천 덕목이 바로 '직'이라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천지가 만물을 낳는 것도 직이요,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도 직입니다. 저의 실천 윤리인 예학은 '직'의 실천으로, 직을 실천하여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직'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과감한 태도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저를 서인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조헌(趙憲)·이귀(李貴)의 상소도 모두 저의 농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강민우: 그래서 벗에 대하여 '직'의 도리를 다하여 이이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 하였던 것이군요. 또한 재상인 정철의 결함을 엄하게 지적하여 벗에 대한 도리를 다하였군요.

송익필: 직의 철학은 제자인 김장생에게 전수되니, 김장생은 매양 '직' 한 글자로 마음을 세우는 요건으로 삼았으며, 송시열에 와서는 '직'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어 그의 학문이 직의 철학으로 집성됩니다. 공자-맹자-주자로 전래된 '직'의 학통은 조선에서 송익필-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재주는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출중하다지요. 7~8세 때부터 붓을 대면 남들이 놀라고, 이산해와 이이 등 여러 사람의 문장과 대등하게 일컬어졌다지요.

송익필: 저는 예학자로서 문학에 전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늙도록 부지런히 독서하여 문장과 시문에 뛰어난 듯합니다. 저의 문장은 『좌전』과 『사기』의 문체를 닮아 간명하면서도 조리가 정연하고 변화가 자재합니다. 특히 전기체에 뛰어나며 은아전(銀娥傳)은 후에 쓰이는 각종 전기 소설의 선구자가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시는 당시 8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지요.

송익필: 을사사화 후에 정치적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의 고통은 최악에 달합니다. 이에 젊은 학자들이 울분과 실의를 해소할 탈출구로 몇몇 지인들과 시단을 조직하여 산수 간에 노닐며 시와 술로써 시름을 달랬던 것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유남악(遊南嶽)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호젓하게 있는 서너 벗이 衣草三四人
티끌세상 밖에 노니네. 於塵世外遊
골이 깊으니 꽃은 한가히 늘어졌고 洞深花意懶
첩첩한 산속 물소리 더욱 그윽하여라. 山疊水聲幽
끊어진 뫼뿌리는 잔 속에 어리고 斷嶽盃中畫
긴 골바람은 소매 속에 싸늘하게 스며드네. 長風袖裏秋
흰 구름 바위 아래 뭉게뭉게 이는데 白雲岩下起
돌아가는 길은 푸른 소 멍에 맨 신선인 듯. 歸路駕靑牛 (『고봉집』 권2)

세속 밖을 노니는 몇몇 지기, 깊은 산골 속의 꽃과 물소리는 마음을 씻어주고 한가롭게 합니다. 잔 들고 수다 떨다 굽어보니 잔에 어린 산의 모습, 옷깃으로 스며드는 긴 바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이는 속에 돌아오는 그들은 이미 세속인이 아니라, 푸른 소를 멍에에 멘 신선이 됩니다.

송익필: 이것은 퇴폐한 정치와 민생고 속에서 사회 진출이 막힌 젊은 선비들의 현실에 대한 직시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술로써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울분을 신선으로 승화시켰으나 현실 극복을 위한 과장에 불과합니다.

강민우: 이들은 모두 강한 자아의식과 현실극복이라는 과제로 시단을 조직하여 당시 사회적·정치적 불만을 해소하였군요.

송익필: 무이 시단의 계원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최립(崔岦)·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하응림(河應臨)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이산해·윤탁연(尹卓然)·이순인(李純仁) 등 관료 문인들입니다.

강민우: 8대 문장가 중에서 중심인물은 연령·학문·문학적 지위로 보나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저의 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꾸밈에 힘써 아름답고도 기이하지만, 이는 꾸밈이요 성정이 흐르지 않아 흥취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저의 시는 깊은 학문으로서 화평하고 해박한 속에서 꾸밈없이 성정이 유출되어 평담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수양의 방법으로서 허정(虛靜)을 중시하였다지요.

송익필: 허정의 심리상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씻어버리고 고요함 속에서 직관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허정의 속에서 사물을 대할 때 물아(物我)가 일치되어 그 속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은 낙천적이고 세상의 일에 달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저의 시를 가리켜 허균은 청절(淸切)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민우: 물아의 경지에서 자연과 일치하여 참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청(淸)이란 물아의 경지에서 참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시인의 생명력이며 시의 최고 요건입니다. 저의 시가 평담하고 청수한 것은 깊은 수양으로 성정의 조화를 이룬 데서 온 것입니다. 허정은 침착하여 사물을 대할 때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어 자연을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학의 활동을 통하여 내적인 정신세계를 즐김으로써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도를 즐기는 낙천주의가 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선생님은 주관적인 정감을 읊어 이백(李白)의 시와 방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군요.

송익필: 저는 이백의 시에 화운한 작품이 많습니다. 저의 시를 이백의 풍을 닮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작품입니다. 말년에 쓴 시는 충담하면서도 청절하여 도연명(陶淵明)의 시와 닮았다고도 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시는 자연과 우국 애민의 정열이 넘치는 것이군요.

송익필: 저의 정신적 뿌리는 '직'의 철학에 있습니다. 몸가짐을 직으로 하여 행실이 곧고 말이 곧으니, 이에 현실을 비판하고 백성들과 아픔을 함께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떠돌며 전전하는 자신의 신세와 임진왜란으로 겪은 참화를 생생하게 그린 시는 두보(杜甫)에 가깝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남긴 450수의 시는 음풍농월을 일삼는 문인의 시와는 달리, 자신의 생애와 사상의 표출입니다. 물아를 일체화한 선생님의 사상은 자신과 백성들이 둘이 아니요, 그들이 처한 아픔을 함께하고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풍자를 잃지 않아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5) 기호유학의 산실-파주와 삼현(三賢)

강민우: 파주는 기호 유학의 소산이라고 하지요.

송익필: 기호 유학은 영남 유학과 더불어 한국 유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경기도·충정·호남을 아우르는 유교문화권이 기호 유학입니다. 기호 학풍은 매우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불교·도가·양명학 그리고 서경석의 기학(氣學)까지도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김창협처럼 성리학 내에서도 이황의 '리' 이론을 수용하여 절충론이 나오기도 하고, 오직 리만을 중시하는 유리론(唯理論)적 사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리학·예학·실학·양명학·의리학 등이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이러한 기호 유학이 둥지를 튼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강민우: 한국 유학에서 '기' 철학의 선구자가 서경덕 선생인가요.

송익필: 한국 유학에는 '기'를 중시한 서경덕, '리' 중심으로 일본 유학의 원조가 된 이황, 현실 속에 실천을 강조한 이이, 양명학의 대부 정제두 등이 있습니다. 서경덕의 '기' 철학은 현상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개체의 사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본체인 '하나의 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합니다.

강민우: 파주는 어떤 곳인가요.

송익필: 무엇보다 파주는 이이와 성혼,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우정을 나누며 학문하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파주가 조선 유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들어서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큰 간판이 보입니다. 안동은 나름대로 조선 유학의 본고장이 안동이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적인 도시가 안동이라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강민우: 영남 유학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기호 유학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사실 조선 유학은 기호 유학(또는 기호학파)과 영남 유학(또는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전개됩니다. 각기 형성된 배경과 전개된 양상이 다르며 학파적 특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안동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가 하면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수련원을 비롯해 많은 유교문화 연구, 교육, 관광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기호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은 매우 부족합니다. 기호 유학의 중심지로는 파주와 충남·대전 지역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파주가 기호 유학의 씨를 뿌린 곳이라면, 충남·대전 지역은 그 씨앗이 싹터 열매를 맺은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파주의 유교 문화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민우: 기호 유학을 파종하고, 심고 가꾸는 데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이·성혼·송익필 삼현(三賢)이군요. 그들이 모두 파주 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파주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물론 이이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덕수 이씨의 친가가 파주입니다.

송익필: 삼현 가운데 이이와 성혼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저에 대한 소개는 아직 미약한 듯합니다.

강민우: 2015년 구봉 송익필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파주에 본부를 두고 <구봉문화학술원>으로 고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또한 구봉 학술총서 제1집 『잊혀진 유학자-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을 발간하기도 하고요.

송익필: 기호학파의 씨를 뿌린 이이·성혼·송익필의 삼현이 16세기 파주에서 활동했다면, 이들에 앞서 사화 시대에 파주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선구적인 유학자가 성수침(成守琛, 1493~1564)과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이며, 또한 조선 초기 세종 시대 주역으로 유교적 정치 실현에 앞장섰던 명재상 황희(黃喜, 1363~1452)도 파주 인물입니다. 특히 성수침과 백인걸은 이이·성혼·송익필 삼현이 조선 유학의 대학자로 성장하는데 선하가 된 인물들입니다.

강민우: 사화(士禍)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화'는 조선 전기의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참혹한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발생한 해의 간지를 따라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戊午史禍), 1504년(연산군 10)의 갑자사화(甲子士禍),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乙巳士禍)로 불립니다. 1970년대 이후, 현대 한국사 연구에서는 '훈구파'가 '사림파'를 탄압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성수침은 '기묘사화'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송익필: '기묘사화'는 1519년 음력 11월에 중종의 주도로 남곤·심정·홍경주·김전 등이 조광조·김식·김정 등 신진 사림의 핵심 인물들을 몰아내어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정치질서가 회복되면서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지치(至治)와 같은 이상 정치 실현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상적 성군을 임금에게 강요하자 중종이 등을 돌렸고, <자격도 없이 공신에 봉해진 사람들의 작위를 박탈한다>라는 반정공신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세력을 공격하자, 이들은 계략을 꾸며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를 제거한 것입니다.

강민우: 삼현 가운데 먼저 이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송익필: 이이의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 본관은 덕수(德水)인데, 강릉 외가에서 출생합니다. 부친은 이원수(李元秀)이고 모친은 신사임당입니다. 파주 율곡촌은 아버지 이원수의 고향이고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이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파주 친가에 자주 드나듭니다. 이이는 1564년 29세에 명경시(明經試)에 합격하여 호조좌랑으로 임명된 이후 여러 관직을 지냅니다. 이이의 활동 무대는 대체로 서울·강릉·파주·해주입니다. 중앙관직에 근무할 때는 주로 서울에 살았고, 외가인 강릉과 처가인 해주에서도 살았습니다.

강민우: '명경시'는 조선시대 문과 초시에서 『논어』·『맹자』·『대학』·『중용』의 사경(四經)을 중

심으로 시험을 보던 분과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가운데 생원이나 진사를 뽑는 소과(小科) 과거시험의 1단계 시험에 해당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1572년 37살 때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에 돌아와 성혼과 성리논변을 벌이고, 그 이듬해에 홍문관 직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8월에 파주 율곡으로 들어갑니다. 또 40살 때(1575) 병으로 파주 율곡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이듬해 2월 다시 파주 율곡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1583년 6월 동인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파주 율곡으로 돌아왔다가 49세(1584)를 일기로 서울 대사동에서 별세하고, 파주 자운산(紫雲山)에 안장됩니다.

강민우: 오늘날 파주에는 이이의 묘소와 자운서원, 그리고 화석정(花石亭)이 남아있습니다. 2015년 이들 파주의 이이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됩니다. 이이는 천재형의 철학자로, 강릉 출신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친가가 파주 율곡촌이었으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파주에 자주 왕래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혼을 만나고 송익필 선생을 만나 도의(덕)로써 사귄 것이군요.

송익필: 이이는 천성이 늘 나라 걱정과 백성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가하게 현학(玄學)을 논하는 사변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비록 몸은 젊어서부터 약했지만, 현실에 대한 우환의식과 경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현실정치에 적극적인 인물이 바로 이이입니다. 그래서 평생 진퇴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학문에 전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강민우: 그래서 이이를 탁월한 경세가로 평가하는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는 경세에 탁월한 식견을 지닌 경세가입니다. 이이의 수많은 상소문은 경세 전반에 관한 개혁 사상과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이의 여러 상소문은 유형원이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저술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이의 개혁 사상 내지 경세 사상은 조선의 실학사상 발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조선 후기 실학의 선구로 평가받습니다.

강민우: 이이의 성리학 역시 그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다지요.

송익필: 이이는 경세에도 밝았지만, 성리학의 이론에도 탁월합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은 리를 강조하는 이황의 이학(理學)적 특징과 기를 강조하는 서경덕의 기학(氣學)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이는 리를 주로 하는 주리(主理)와 기를 주로 하는 주기(主氣)를 지양하고, 이기지묘(理氣之妙)의 입장에서 리와 기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기지묘'의 다른 표현으로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說)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주장하여 조선 성리학의 심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강민우: '기발이승일도'가 무슨 뜻인가요.

송익필: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은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후 기호학파 또는 율곡학파의 기본 입장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감정(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됩니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리가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황의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타는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는 이론과 구분됩니다. 이이는 '리는 작용성이 없고 기는 작용성이 있다(理無爲 氣有爲)'는데 근거하여, 실제로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리는 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단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발이승일도'를 말합니다.

강민우: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니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 됩니다. 그러나 이이는 사단도 기가 발한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한 것이니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이라 하는군요.

송익필: 이이는 경세와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이황과 함께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그의 투철한 우환의식과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유학자의 전형, 참된 지성인의 표상입니다. 그리하여 이이는 '우리나라 18현(賢)'으로 추앙되고 기호 유학의 종주로 존경받습니다.

강민우: 성혼 선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성혼은 성수침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본관은 창녕(昌寧)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파주로 이사하면서 성혼도 아버지를 따라 파주에 가서 살게 됩니다. 17살 때에는 파주에서 백인걸의 문하에 들어가 『상서(尙書)』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배우고 성리학을 배웁니다. 성혼은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아 안변(安邊)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인 파주 월롱(月蘢)에 머물던 백인걸에게 아버지의 소개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강민우: 이이도 20살 때 금강산에서 돌아와 성혼과 함께 백인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지요.

송익필: 이 시기에 성혼은 이이나 저와 학문적 교유를 합니다. 이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편지 왕래를 통해 학문과 우정을 나누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제가 『삼현수간(三賢手簡)』을 만듭니다. 2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0살까지 성혼은 3년간 어버이를 추모하는 일로 세월을 보냅니다.

강민우: 그러다가 우계 서원을 지어 학생을 가르쳤군요.

송익필: 36살 때(1570) 적성 현감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성혼은 후학 교육에 힘을 쏟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죽우당(竹雨堂)의 동쪽에 3칸 정도의 우계 서원을 지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조헌(趙憲)을 비롯하여 원근의 선비들이 성혼의 학덕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므로 서당을 만든 것입니다. 성혼은 임진왜란 때 고향을 떠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약 24년 동안 우계 서실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그 문도들이 무려 90여

명에 이릅니다.

강민우: 이이와 성혼은 평생 우정을 지키며 학문에 전념하여 두 분이 모두 문묘(文廟)에 종사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이군요.

송익필: 그렇지만 성혼과 이이는 기질과 학풍에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이가 매사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성혼은 소극적입니다. 특히 현실에 대한 태도나 경세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대조적입니다. 성혼은 부친 성수침을 비롯한 가학(家學)의 영향을 받아 은둔적 학풍을 쫓습니다. 이는 성삼문(成三問)의 죽음 이후 형성된 창녕성씨 가문의 가학풍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 성수침이나 성혼 자신도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꺼립니다.

강민우: 이이는 이 점에서 늘 불만이었다지요.

송익필: 이이가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성혼은 겸양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자기 수양에 전념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영남 유학의 종주인 이황을 사모하고 그의 학문 태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인이 성혼을 존경하고, 그의 덕망을 우러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이가 말한 "학문의 이론에서는 내가 나을지 모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성혼이 낫다"라고 고백한 데서도 잘 입증됩니다. 성혼은 이이처럼 성리의 이론적 계발보다는 성리의 실천에 치중합니다. 그의 문하에 많은 제자가 모여들어 파산문하(坡山門下)의 융성을 보여줍니다. 이이가 벼슬길에 나아가 정사에 참여하고 현실개혁에 기여했다면, 성혼은 많은 시간을 후학의 교육에 바칩니다.

강민우: 성혼의 학문은 그의 사위인 윤황(尹煌)에게 이어지고, 다시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으로 이어졌다지요.

송익필: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고, 이는 다시 학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호 유학(또는 기호학파)은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權尙夏)-한원진(韓元震)의 율곡학파로 전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혼-윤황-윤선거-윤증의 우계학파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우계학파는 우계(성혼)의 일가들뿐만 아니라 당시 노론 계열에 반대하던 박세채(朴世采)를 비롯한 많은 유학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입니다. 우계학파는 율곡학파와 달리 성리학에서도 절충적 경향을 보이며, 율곡학파보다 개방적 입장에서 학문을 합니다.

강민우: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은 회니시비(懷尼是非)를 말하는 것인가요.

송익필: 송시열은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와는 친구 사이이고, 윤증과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송시열과 윤선거는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한 친구입니다. 역시 친구 사이였던 송시열과 윤휴가 현종 때에 예송(禮訟)으로 불화를 빚자, 윤선거가 그들을 화해시키려 하다가 도리어 송시열의 불만을 삽니다. 이에 송시열은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죽지 않은 일을 비난하고, 윤선거의 묘지명을 무성의하게 지음으로써 제자 윤증과 갈등을 빚습니다.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은 이후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소

론과 노론의 붕당으로 이어집니다. 송시열이 살던 곳이 회덕(懷德)이고, 윤증이 살던 곳이 니성(尼城)이어서 그 첫 글자를 따라 회니시비(懷尼是非)라 부릅니다.

강민우: 이들의 갈등은 송시열의 강경파와 윤증의 온건파로 나뉘어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보이면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던 것이군요.

송익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계는 병자호란 후에 대의명분론에 따른 강경한 척화론(斥和論)으로 대응하지만,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계는 실리에 기초해 주화론(主和論)으로 대처합니다. 유학에서도 송시열이 의리적 학풍을 강조한다면, 윤증은 실속에 기초한 무실(務實)적 학풍을 강조합니다.

강민우: 윤증의 소론계가 경(敬)을 중심으로 한 마음공부에 주력하는 우계 학파를 주도해 나갔다면, 송시열의 노론계는 영남 유학의 이황에 대응하여 이이의 성리학 이론을 체계화하는 율곡학파를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학풍에 있어 윤증의 학맥이라 할 수 있는 우계 학파는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지만, 송시열의 율곡학파는 율곡학의 계승과 주자학에 충실합니다. 윤증·송시열의 갈등과 노론·소론의 갈등은 여러 사건과 학문적 이념적 차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 양상은 조선조 당쟁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민우: 유학이 유학자들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정치 관계에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요. 이어서 송익필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峰),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살다가 만년에 충남 당진에 은거하다 그곳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저는 신분 문제로 불우한 역경 속에서 살다가, 타고난 재주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불운아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송린은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노비이자 이복 딸인 감정과 결혼하여 송사련을 낳습니다. 저의 할머니 감정은 <안당의 아버지>안돈후의 노비 중금(重今)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얼의 신분에 놓이게 됩니다.

강민우: 1521년 선생님의 아버지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 등이 당시 정권의 실세이던 남곤·심정 등을 제거할 것을 도모한다고 고발하여, 안당과 안처겸 등 안씨 집안과 수십 명의 선비들이 희생되는 '신사무옥'을 일으킨 것이군요.

송익필: 그러나 60년 후 1586년에 송사련이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고발한 것임이 밝혀지고 안당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미 죽은 송사련의 관작이 삭탈되고 저의 집안은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안씨 집안에서는 저까지 노비를 삼겠다고 하자, 저는 은둔과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 정철·김장생·이산해 등 지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1593년 유배에서 풀려나 1596년 충남 당진 마양촌에 정착하여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66세(1599)로 세상을 떠나 당진 북면 원당동에 묻힙니다.

강민우: 성혼이나 이이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송익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파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21살 때 동년 연배의 이이·성혼과 사귀어 평생 우정을 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이·성혼이 죽고 난 후 만년에 아들 취대를 시켜 우리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삼현수간』이라는 이름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파주를 배경으로 우리들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신분적 제약 때문에 과거에 금지당해 평생 벼슬에 나아갈 수 없었겠군요.

송익필: 그래서 저는 27살 때부터 파주 교하읍 심학산 구봉 자락에 서당을 차리고, 김장생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이이·성혼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 50대 이전은 주로 파주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 이후는 은둔·도피 생활을 하다 만년에 충남 당진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세상을 뜹니다. 저의 제자가 바로 김장생·김집이라는 점에서 이이와 함께 율곡학파의 씨를 파종한 셈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삼현 가운데 가장 잊힌 인물인 듯합니다. 성리학에 있어서도 이이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이가 23살 때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급제하여 선비들이 그 내용을 묻자, 이이는 "나보다 송익필이 성리에 더 조예가 깊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다지요. 선생님은 일찍이 『태극문(太極問)』을 지었는데, 이는 이이·성혼은 물론 이황조차 성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이 없던 시기입니다. 이이는 자신과 성리학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오직 선생님이라고 평가했다지요. 그만큼 선생님은 성리학에 있어서 조예가 깊었고요. 또한 선생님은 예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송익필: 우선 '동방 예학의 종장'으로 추앙받는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이 저의 문하에서 예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이의 정통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저의 학문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제가 쓴 『가례주설(家禮註說)』은 우리나라 예설의 선구적 저술입니다. 저의 예학은 이이·성혼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문답」에서 보여준 저의 예학에 대한 식견 때문입니다. 저는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속례(俗禮)」 부분은 한 가문의 예설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예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경세에도 조예가 깊다지요. 신분상의 문제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이이를 통해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지요. 서기(徐起)는 자신의 문하생들에게 "너희들이 제갈공명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송익필을 보라. 송익필이 제갈공명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제갈공명이 송익필과 흡사하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의 경세적 안목과 역량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송익필: 저는 이이에게 국방에 관해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파주는 조선조 기호학파의 산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이·성혼·송익필이 낳고 자라고 활동한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이들에 의해 조선조 기호 유학이 융성하게 전개

됩니다. 그 양대 산맥이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이 바로 이이·성혼·송익필입니다. 경북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처하듯이, 파주도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산실'이라는 높은 자긍과 문화적·역사적 사명감을 강하게 가져야 하겠군요.

(6) 송익필과 이이와 성혼의 교유

강민우: 『율곡연보』에 따르면, 송익필 선생이 성혼·이이와 우정을 맺고 학문적 교유를 시작하였다지요.

송익필: 이때가 1544년으로, 제가 21세, 이이는 19세, 성혼은 20세입니다. 이때 이이는 금강산에서 1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파주로 돌아온 뒤입니다. 또한 저는 박순(朴淳)·정철 등과도 우정을 맺고 학문을 연마합니다. 우리의 교유는 단순히 20세 청년들의 친목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25세 때(1558)에 이이 등과 별시(別試)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관리이던 이해수가 서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합니다. 한양에서 치러지는 대과(大科, 별시에 합격한 자들이 볼 수 있는 과거)에서 금지당합니다.

강민우: 그 후 선생님은 파주의 구봉(龜峯), 즉 지금의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자락으로 돌아와서 강학을 시작하였군요. 이때부터 구봉 선생으로 불렸으며, 김장생 등이 선생님에게 수학하였지요.

송익필: 1586년 아버지 송사련이 일으킨 '신사무옥'이 그야말로 거짓 일로 밝혀지고, 아버지에 의해 죽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의 신원이 이루어지자, 아버지의 관직이 삭탈 됩니다. 저의 할머니가 노비였다는 이유로 저의 식솔 70여 명이 졸지에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때 정철의 도움으로 전라도 광주로 피신하게 되죠.

강민우: 그렇지만 선생님의 일생에서 27세부터 53세까지는 그래도 평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익필: 약 26년 동안은 저는 강론도 하며 이이·성혼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을 토론하던 시기입니다. 동양에서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군자지교(君子之交)라고 합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좋은 사람과 지내면 향기로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그와 동화된다. 좋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와 동화된다." 이 두 문장은 일반적으로 친구의 사귐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저와 이이·성혼과의 사귐은 단지 인간적인 교유에 그치지 않고 특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신분의 벽을 넘었고,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까지 돈독한 우의를 지속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이이·성혼과 함께 우정을 나누어 기호 유학의 기반을 형성하고, 김장생 등을 가르쳐서 후일 기호 유학 성립에 큰 영향을 남긴 것이군요.

송익필: 저의 생애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역경 속을 헤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당시 조선은 신분적 차별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학문적 이상과 가문의 흥망성쇠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출세의 길은 오직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들어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민이라는 신분의 굴레로 인해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송익필: 제가 살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왕조 건립에 공을 세운 훈구세력과 새롭게 성장한 지방의 사림세력 간의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많은 선비가 화를 당하던 4대 사화가 일어났고,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시작된 1589년 '기축옥사'는 많은 선비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밖으로는 1583년 여진족의 침입과 남쪽으로 왜적의 잦은 침입 끝에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사회는 피폐해지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고는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강민우: 하물며 천민의 신분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은 학문적 성취와 덕망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의 길은 허용되지 않고 신분의 한계로 어려운 역경 속의 삶을 살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은 오직 과거제도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관직의 길로 나아가 유학의 이상인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를 펼치게 됩니다. '내성외왕'이란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경세의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관직의 길이 막혀서 경세를 펼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을, 시를 읊어서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가적 시풍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문에 뜻을 두고 투철하게 실천하여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유학자로서 의지를 굽히지 않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익필: 저는 특별한 스승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희의 문집인 『주자대전』 전체를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학문적 성취는 20세 초반부터 함께한 이이와 성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서로 다르고 가문의 학풍이 다르며 성격도 달랐지만 변치 않는 학문과 우정을 나눕니다. 이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절세의 우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나눈 우정은 주고받은 편지글인 『삼현수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현수간』은 본래 저의 문집 속 「현승편(玄繩編)」에 실려 있는 것으로, 후세 학자들이 『삼현수간』이라 이름 붙이고 따로 떼어서 책으로 엮어 오늘날 보물 1415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강민우: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졌던 송익필·성혼·이이 삼현(三賢)의 우정은 오늘날까지도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귀감을 삼습니다.

송익필: 무엇보다 저의 할머니가 천민이라는 신분의 약점을 지닌 것을, 이들이 20세 전후 파주에서 교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이와 성혼은 저와 우정을 맺고, 또한 저의 부친이 사림들에게 허물을 지은 '신사무옥'의 장본인임을 알면서도 교유를 허락한 것은 오늘날 친구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강민우: 편견과 차별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학문적 비범함 때문이 아닐까요. 이이가 장원급제한 당시, 과거시험 문제로 나온 <천도책>에 대하여 질문하는 선비들에게 "송익필이 밝고 뛰어나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지요. 또한 이이가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익필만이 성리학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말은 선생님의 학문에 대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혼도 예학·성리학·수양론 및 관직에 대한 출처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질정했다지요.

송익필: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과 『소학집주』, 『순언』, 서모에 대한 예법 등에 대하여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함으로써 서로 가르치면서 배움을 이룹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학문 정신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지요. 대표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이 몸은 진·한 뒤에 태어났으나, 정신만은 우·탕의 선대와 부합되네." (『구봉집』 권1) 저 자신이 비록 진나라와 한나라의 시대 뒤에 태어났지만, 정신만은 우임금과 탕임금의 선대와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선왕으로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지 않고, 우임금과 탕임금을 말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자연한 본성을 정치에 실현한 대표적인 성왕이지만, 우임금과 탕임금은 인간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상 정치를 실현한 성왕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또한 선생님에 대한 서기(徐起)의 평가도 훌륭하다지요.

송익필: 서기의 저에 대한 평가는 송시열의 문집에 보입니다. "너희들이 제갈공명을 알고 싶으면 송익필을 보면 될 것이다.……나는 제갈공명이 송익필과 비슷했으리라 여긴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신출귀몰하고 바람과 비를 자유자재로 불러오게 하여 병법과 군사의 전술전략의 귀재인 제갈공명보다 저를 높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과찬입니다.

강민우: 또한 조헌은 상소문에서 군기(軍機)를 관장하는 인물로 선생님을 천거했다지요. 이로 보면, 선생님은 문무(文武)의 기량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헌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송익필: 저는 당시 화를 피하여 조헌이 관직으로 있던 옥천과 보은(報恩) 등지에서 지내던

차에 왕래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우: 조헌은 선생님에 대해 “송익필은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제 아비의 허물을 덮을 만하였다. 이이와 성혼도 모두 그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친구로 여겼다”라고 했다지요. 그리고 송익필 선생에게 배운 송이창은 동국 18현에 배향된 송준길(宋浚吉)의 부친이며,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는 송준길의 외종조부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의 기호 유학에서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송이창은 저에게 배운 실천 중심의 학문을 그의 아들 송준길에게 가학(家學)으로 전하여 훗날 김장생과 함께 기호 예학을 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학문은 유교 경전 중심의 사변적인 학풍보다는 예학처럼 실천적 학풍을 중시합니다. 유학 본래의 실천성이 김장생과 송준길 등 후학들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기호 유학의 기반이 됩니다.

강민우: 기호 예학의 종장 김장생이 지은 『의례문해(疑禮問解)』는 거의 절반이 김장생과 송준길이 주고받은 <예문답>의 내용이라지요.

송익필: 기호 예학에서 예에 관한 문답 형식의 예서가 만들어진 것은 김장생이 저에게 예학에 관해 가르침을 전수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이·성혼·정철·김장생 등과 예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저의 문집 속에 「예문답(禮問答)」으로 전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에 대한 송준길의 평가는 조선의 예학사와 기호 유학에서 그 학문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네요. “김장생이 이이 선생을 사사하여 도를 이루고 덕을 높였으나, 그가 빗장을 빼고 열쇠를 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준 사람이 바로 송익필 선생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선생님에 대한 송시열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익필 선생은 오직 의리를 밝혀서 자신을 닦고 그것을 후세에까지 전함으로써 지금 김장생의 학문이 세상의 으뜸이 되었으니, 송익필 선생이 우리 학문에 큰 공을 남겼다.” 충청도 관찰사 홍계희(洪啟禧)의 평가도 같습니다. “송익필은 바로 이이·성혼과 사귄 벗이고 김장생의 스승이다. 그의 경학이 일세의 표준이 되어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송익필 선생이라 일컫는다. 학행이 탁월한데 그 문벌이 미천한 연유로 아직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등.

송익필: 이러한 노력 때문에 1752년 제가 죽은 뒤 153년 만에 천민에서 풀려나 신원되고 ‘동덕랑행사헌부지평’에 추증됩니다. 제가 죽은 뒤 163년 만인 1762년에야 김장생의 현손인 김상성에 의해 저의 문집인 『구봉집』이 간행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신분의 제약에서 풀려나서 시호를 받으며 문집이 간행된 것은 150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무려 다섯 세대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선생님의 문집 내용은 다른 유학자들의 문집보다 분량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또 충남의 유학자인 윤봉구(尹鳳九)는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문인으로,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입니다. 윤봉구는 1720년에 송익필의 충남 당진시 북면 원당동 묘소 옆에 현재의 입한재(立限齋)를 세웠다죠.

송익필: '강문팔학사'는 조선시대의 학자인 권상하 문하에 있던 8인의 충청도 제자를 말합니다.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하는 충청도 청풍의 황강(黃江) 옆 한수재(寒水齋)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의 제자'라고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를 '강문팔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한원진·이간·윤봉구·채지홍·한홍조·현상벽·윤혼 등을 칭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성만징·이이근·최징후를 넣고, 윤봉구·한홍조·윤혼을 빼기도 합니다.

강민우: 이상의 평가를 통해서 볼 때, 선생님이 남긴 학문적 공헌이 실로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학들의 노력으로 영조 때(1752)에 지평에 추증되고 순종 때(1910)에는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게 되었군요.

송익필: 저는 신분의 굴레에 얽매여 시대적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학문과 수양의 실천에서 선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비록 관직의 길에 나아가 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 정치를 직접 펼 수는 없었지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유학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그래서 선생님은 이이·성혼과 함께 기호 유학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아울러 김장생을 교육하여 기호 예학을 완성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것이죠.

(7) 송익필의 인간관계-『삼현수간(三賢手簡)』

강민우: 이이·성혼·송익필의 우정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하다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알려졌는데, 일본의 임의방(林義方) 같은 학자는 이들을 중국 남송 대의 유학자인 주희·장식·여조겸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국내 후학들 사이에는 이런 비유가 없었지만, 그럴듯한 비유인 듯합니다. 특히 송익필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599년 봄, 그의 아들 취대가 엮은 『삼현수간』에 의지한 바가 크다 하겠어요.

송익필: 『삼현수간』은 이이·성혼·저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으로, 모두 98통의 편지글이 실려 있습니다. 삼현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16통이고, 일부만 실려 있는 것이 15통입니다. 개인별로 주고받은 것을 보면, 성혼이 저에게 49통, 제가 성혼에게 20통, 이이가 저에게 13통, 제가 이이에게 7통을 보낸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이와 성혼이 주고받은 편지는 제가 소지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강민우: 『삼현수간』의 내용을 보면, 이이와 성혼 두 사람 모두 송익필 선생에게 의지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지요. 이것은 선생의 위상과 관련이 있겠군요. 『구봉집』 권4-5의 「현승편」에 본 편지의 일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원제목이 <현승편>임을 알 수 있으며, 『삼현수간』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현승편」에 나오는 총 98편의 편지 가운데 세 사람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16편, 일부만 실려 있는 것이 15편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1560년부터 시작하여 죽기 전인 1593년까지 계속됩니다. 세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서신을 왕래하는데, 개인적인

일, 학문과 관련된 사항, 이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안타까워한 일 등 35년이란 세월을 두고 교유한 내용입니다.

강민우: 오늘날 『삼현수간』은 2001년에 임재완이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호암미술관 학술총서)이란 이름으로 역주한 것이 있습니다. 『삼현수간』은 송익필 선생이 죽기 직전 1599년에 아들 취대가 보관하던 서간문을 수습하고, 선생님이 서문을 붙여 4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이것을 김장생에게 주어 지금까지 광산 김씨 종가에서 보관해 오다가 1989년 처음 공개되고, 2001년 임재완이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것입니다.

송익필: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성혼·이이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 지금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나만 살아있다. 몇 날 더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들 취대가 지난 임진왜란으로 두 친구의 글이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편지와 내가 답장한 글, 그리고 잡다한 기록을 모아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모두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죽기 전에 보고 느끼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만력 기해년(1599) 봄 송익필 씀"

강민우: 『삼현수간』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송익필 선생이 성혼에게 보낸 것이 20회, 송익필 선생이 이이에게 보낸 것이 7회, 송익필 선생이 성혼과 이이에게 보낸 것이 1회, 성혼이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것이 48회, 성혼이 송익필 선생과 그의 동생인 송한필에게 함께 보낸 것이 1회, 이이가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것이 14회, 기타가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혼이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48회이고, 송익필 선생이 성혼에게 보낸 편지가 20회로, 송익필 선생과 성혼 사이의 왕복 서신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이이와의 편지가 적은데, 이는 아마도 이이가 바쁜 관직 생활과 함께 송익필·성혼보다 10여 년 이상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송익필·성혼·이이가 주고받은 편지글 이외에도 송익필 선생이 김장생에게 보낸 편지 2편, 허우(許雨)에게 보낸 편지 2편, 조헌에게 보낸 편지 1편, 이산보(李山甫)에게 보낸 편지 1편, 정철에게 보낸 편지 1편이 실려 있습니다.

송익필: 우리 세 사람의 왕복 편지 가운데 실제로 저와 성혼이 주고받은 편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편지글 가운데 성혼이 저에게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성혼이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는 글과 출처(出處)의 의리를 묻는 글이 많습니다. 저는 성혼에게 "병든 몸을 이끌고 대궐로 나아가서 이러한 기회에 정의를 펼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출처의 의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삼현의 돈독한 우정이 있었기에 김장생·김집·조헌 등 수많은 유학자가 이들의 문하를 드나들며 학문을 성취하였겠군요. 이는 후일 기호 유학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한국 유학사상사에서도 큰 업적을 남겨서 삼현의 우정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송익필: 편지 내용은 주로 성리와 예학에 관한 글, 수양방법에 대한 의견과 경세에 관한 시책 등 서로를 권면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민우: 또한 학문적인 교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한 시대를 대변한 유학자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경륜에서 선생님이 이이와 성혼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고, 이는 이이와 성혼이 인정했다지요. 이이와 성혼이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선생님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청하기도 했고요.

송익필: 30년 이상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결같이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삼현은 세상에 그 짝이 드물 정도로 친한 벗이지만, 때론 준엄한 비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강민우: 삼현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송익필: 장유(張維)는 "「현승편」을 통해 노선생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얻어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성실하게 문의하고 얼마나 우의가 돈독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지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이의 말씀은 솔직하고 평이하며, 성혼의 말씀은 공경스럽고 간절하며, 송익필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학식이 깊었다." (『계곡집』 권3)

강민우: 삼현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면들이 많은 듯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편지글을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송익필: 성혼과 이이는 천민이 되어 전국을 떠돌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기·생선·약초·식량 등을 보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보내준 송화 떡을 먹고 고마워하는 성혼, 저를 위해 간에 좋다는 토사자와 폐에 좋다는 육종용과 오미자 등을 구해주고 때로 말린 물고기·옷감·곡식을 보내 알뜰살뜰 보살폈던 성혼, 저에게 편육 약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챙기라고 당부한 성혼의 우정은 정겹다 못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강민우: 선생님도 말린 노루고기를 성혼에게 답례로 보내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지요.

송익필: 청어 몇 마리를 저에게 보내면서 "물이 스며 문드러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채소보다는 나을 듯합니다"라고 했던 성혼. 그는 또 숯이 없어 고생하는 저를 생각하여 숯 한 가마니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아우 송한필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걱정했던 성혼의 넘치는 인정에 고개가 절로 숙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성혼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군요. "여러 차례 어육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절한 정성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는 마음 잘 받겠습니다." "종이를 가득 채운 다정한 말은 나태한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진귀한 해산물 30개는 질병으로 삐쩍 마른 저의 마음과 몸을 염려하신 것이겠지요."

송익필: 이이 역시 저에게 보낸 서한에서 "봉급으로 받은 쌀과 콩 두 말씩을 보냅니다. 포대는 인편에 보내주심이 어떨지요"라고 했습니다. 성혼 못지않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이는 저에게 작은 문어 두 마리를 보내면서 약소하다는 생각에 "등

에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강민우: 이러한 우정에도 학문에는 저마다 특징이 달랐다지요.

송익필: 『삼현수간』을 통해 삼현이 학술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이이는 솔질하고 거침이 없으며 대통을 쪼갠 듯 시원합니다. 성혼은 겸손하고 신중하면서도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과 허점을 매섭게 지적합니다. 저는 솔직하고 거침없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후학들로부터 "송익필은 재주와 학식이 넉넉하나 덕이 부족하여 성혼·이이 두 사람과 말할 때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뜻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민우: 성혼이 선생님께 "이이의 날카로운 칼날이 송익필에게 완전히 굴복되는 것을 알고는 지극히 위로되었다"라고 한 것은 선생님의 학문적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신중하고 겸손한 성혼은 매사에 선생님께 물었다지요. 태묘(太廟)에 들어가 매사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 하였던 공자를 연상케 합니다. 성혼은 선생님께 "정론을 내달라", "의혹을 풀어달라"고 했다지요. 친구 사이에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성혼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송익필: 이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저와 성혼은 한층 더 각별한 우의를 다집니다. 학문상의 교유보다는 몸의 병, 마음의 병, 번잡한 고민 등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저는 오랜 시련으로 성혼보다는 마음이 다소 단련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혼에게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 몸의 병을 다스리는 길이니 "양심(養心)과 양병(養病)이 같은 방법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저는 수양하면서 얻은 결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도 말해주니 "적막을 지키고 담박함에 안주하여 고요함 속에서 의미를 터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성혼에게 "죽음이란 바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어진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섭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당부했다지요.

송익필: 1584년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 성혼은 서인의 구심점이 되어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을 이끌게 됩니다. 성혼은 이이의 문집을 편찬하는 데도 앞장섭니다. 성혼이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이 문집은 제가 발의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거나 "이이 문집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듯이,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 곧바로 문집의 편집이 시작되었으며 저와 긴밀히 상의하여 추진했습니다.

강민우: 삼현의 우정은 이후 대를 이어 꽃을 피웠다지요. 성혼을 사숙했던 박세채에 의해 『율곡집』과 『우계집』이 엮어지고, 김장생의 후손들에 의해 『구봉집』을 비롯하여 선생님의 저술들이 엮어진 것이죠.

(8) 삼현의 만남과 학문

강민우: 삼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송익필: 삼현은 각각 한 살 터울입니다. 송익필이 1534년, 성혼이 1535년, 이이가 1536년 생입니다. 세상을 떠난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이이가 49세로 가장 먼저 별세했고, 이어 성혼이 64세로, 제가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이와 성혼은 같은 파주 출신으로, 30년 동안 혈육 못지않은 우정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고양 출신인 저는 이이·성혼과 언제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는 기억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이가 23세(1558) 때 별시에서 <천도책>으로 장원급제하였을 때 선비들이 천도책에 대해 묻자, 이이는 "송익필이 고명하니 그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송자대전』 권172)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558년 이전에 삼현의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강민우: 삼현의 집안 배경은 어떻습니까.

송익필: 출신 배경을 보면, 이이는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다지 현달한 집안은 아닙니다.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李元秀)의 행장은 짓지 않으면서 어머니 신사임당의 행장을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이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사실상 독학으로 학문을 이룹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조광조의 수제자인 성수침의 아들로, 정몽주로부터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의 적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강민우: 우리나라 도학의 정통을 이어받아 적전(嫡傳)이 되고,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하여 부자가 일세에 명성을 날렸다는 것이 바로 성혼과 이이의 다른 점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영남 유학의 종주인 이황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습니다.(『우계연보보유』 권1) 이황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 했던 이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학문적 배경은 뒷날 이이와 성혼이 학문관과 출처관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송익필: 저의 경우는 할머니가 천민 출신인 데다가 아버지 송사련이 출세를 위해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었던 탓에, 사대부 가문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이이·성혼과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뚜렷한 사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이룬 점은 이이와 같습니다.

강민우: 집안 배경이 다르니 성격도 달랐겠군요.

송익필: 이이는 성격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저 역시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의욕적이어서 크게 출신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도통을 이은 엄격한 가문에서 자란 성혼은 늘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은 학술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이와 성혼이 몇 년에 걸쳐 '사단칠정논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혼에게 있어서 이이는 학술적으로 어려운 상대였으므로, 성혼은 이이와 학술토론을 하면서 저와 의견 교환한 예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와는 본격적인 학술 논변을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술적 조언자 또는 중재자로 성리학·예학·경세론 등에 관해 질의하면 의견을 청취합니다.

강민우: 이들이 선생님에게 코치를 받은 적도 있다지요. 선생님을 학술 토론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한 수 위로 여긴 듯합니다.

송익필: 성혼은 이이와 제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을 늘 불만으로 여깁니다. 특히 이이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즉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늘 지적하면서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이의 학문적 태도에 대한 성혼의 비판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성혼은 이이가 '천리(天理)를 함양하는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착실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양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궁리 공부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민우: 이이는 성혼의 학문적 특성을 실천이 돈독하고 확실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지요. 이것은 독실한 인품이 바탕이 된 데다 이황의 실천적 학풍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자신과 성혼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리상으로 깨우친 점에서는 내가 성혼보다 나아서 성혼이 나의 설을 많이 따랐다. 그러나 나는 성격이 풀리고 느려서 알고는 있어도 능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성혼은 알고 나면 곧바로 하나씩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두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않은 까닭에 학문을 성취한 것도 다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민우: 성혼은 지극히 우둔한 사람과 총명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면서, 전자를 자신에 후자를 이이에 비하였다지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의 성리학에 관한 식견을 총명한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이이는 학문이 무르익기도 전에 저술에 힘써서, 그에 따른 함양 공부를 등한시한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는 일찍이 이황이 이이를 보고 "오곡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가라지와 돌피 세상이 될까 우려된다"라면서 이이의 총명이 남들보다 뛰어난 나머지 실천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과 통합니다.

강민우: 성혼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이는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성리설에 대해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지요. 도리어 성혼이 자신의 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지요.

송익필: 이이는 성리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는 성혼이 주자의 혹원혹생(或原或生)의 설을 깊이 음미한 뒤에 사단·칠정을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로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형세의 강약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도리로서 말해야 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황간의 설을 가지고 강적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 희롱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제 만약 도리로서 구하지 않고 강약으로만 본다면 한 사람의 이황이 열 사람의 이이를 이길 수 있다. 하물며 황간까지 합세하여 도와준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는 뭇 호랑이가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것과 같다.”

강민우: 사단과 칠정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송익필: 황간과 마찬가지로 성혼은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구분되는 두 가지 정으로 보지만,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으로 봅니다. 이이에 따르면, 정은 칠정 하나이고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 칠정은 두 개의 정이 아니라,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는 하나의 정입니다. 그러나 성혼은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고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사단은 리에 근원하고 칠정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리에 근원하는 사단과 형기에서 생겨나는 칠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리에 근원하므로 ‘리가 발한 것(理發)’이고 기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기가 발한 것(氣發)’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입니다. 이와 달리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기가 발한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한 것이므로 ‘기발 하나(氣發一途)’가 됩니다.

강민우: 성혼은 이이뿐만 아니라 송익필 선생에 대해서도 경계하였다지요.

송익필: 한 번은 다정다감한 성혼이 연우박견(燕遊拍肩)의 고사를 빌어 저의 행동거지를 경계합니다. 이는 ‘한가히 지내면서 손뼉을 치거나 어깨를 들썩인다’라는 것으로, 학문에 힘쓰지 않고 놀기에 힘쓴다는 기롱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과한 비판을 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강민우: 세 사람의 우정은 솥의 세 발과 같이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두 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실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비유할 만합니다. 평생토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간에 비판자로 자처한 것은 궁극적으로 친한 벗을 책비(責備)하기 위함입니다. ‘책비’란 상대방이 모든 일에 허물이 없이 다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춘추』에서 말한 벗을 사귀는 도리의 하나입니다.

강민우: 삼현의 우정을 말하면서 정철과의 교우관계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송익필: 우리 세 사람은 정철과 오래도록 친분을 쌓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서인(西人)이라는 노선이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제멋대로이며 정감적인 정철이 함양 공부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비판합니다. 특히 성혼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성혼은 돌격장 같은 정철의 성격에 매우 우려를 표하곤 합니다. “정철은 주색에 깊이 빠져 나날이 심합니다. 관직이 비록 높다 해도 세상 인정이 더욱 좋지 않으니 딱하고 딱합니다. 이이가 정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치욕을 돌보지 않으니 어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우: 일찍이 정철은 아들 기명(起溟)과 종명(宗溟)을 송익필 선생의 문하에서 나아가 배

우도록 하였다지요.

송익필: 정철은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송익필이 반드시 『근사록(近思錄)』으로써 배우게 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랴. 이는 장차 사람 된 이치를 가르쳐서 너희에게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벼슬이나 구하고 과거 공부에 전심하여 글 짓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면, 내가 하필 너희를 송익필의 문하에서 배우도록 권하랴. 너희는 아비가 스승을 가린 뜻을 생각하고, 또한 스승의 성의를 보아 옛것을 배우고 성현을 바라는 이치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는 것이 좋지 않으랴.”

강민우: 선생님은 정철이 한 나라의 정승임에도 인간적인 결함을 지적하였다지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정철은 천리와 인욕의 경계에서 싸워보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구봉집』 권5)고 하여 그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봉록을 사양하는 용기를 주색을 금하는데 옮기고, 남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근절하며,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그 부족한 바를 두려워하시라. 또 남을 미워하는 성질을 억제하고, 그 행실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친구들을 가볍게 여겨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강민우: 이것은 나이가 서로 비슷한 벗 사이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 본인만 성덕(盛德)군자가 되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까지도 그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정철 역시 이러한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도리를 다했겠군요.

송익필: 예부터 내려오는 벗 사이의 도리를 우리처럼 실천한 사례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이가 죽자, 주자의 말처럼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완성의 길을 함께 닦아 나가길 30년, 서로 변치 않으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알아준 친구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화답해 주고 수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마치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강민우: 이이는 봉록으로 받은 쌀과 콩을 선생님께 보내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지요.

송익필: 이러한 사실은 삼현이 각각 주고받은 편지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성혼은 한약재를 직접 수확했다고 보내기도 하고, 물고기와 소고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를 받고 약재나 말린 노루고기를 성혼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학문을 강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양식과 반찬·약재들을 주고받으며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인간적 정을 나누었습니다.

강민우: 따뜻한 정성으로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삼현의 참된 우정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송익필: 저는 성혼에게 직(直)으로써 함께 강마할 것을 말합니다. “직하지 아니하면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부모를 모심에 직으로써 하고, 임금을 섬김에 직으로써 하며, 붕우를 접함에 직으로서 하고, 처자를 대함에 직으로써 하여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는다.”(『구봉집』

권3) '직'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도를 현실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직입니다. 충효의 도리도 직으로써 행하고, 벗을 사귐에도 직으로써 하여,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제가 성혼과 이이를 벗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직'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익필: 바르고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천리의 성품이 바로 '직'입니다. 일반적인 본성 또는 성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직'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은 본래 선하지만, 더러 기의 청탁(淸濁)으로 막히고 통하지 못하여 그 선한 본성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가르침을 통해 막히고 통하지 못하던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면, 그 본래 선한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직'이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므로 본래 선합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직'은 유가의 선이요, 인(仁)이며 성(誠)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공자는 『논어』에서 "인간의 태어난 자연 상태가 직이다."(『논어』「옹야」)라고 합니다. 직이란 정직한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그것은 인(仁)이라 해도 되고, 선이라 해도 되고, 성(誠)이라 해도 됩니다. 천리 내지 천명을 소유한 인간의 본래성, 혹은 인간의 본심 그 자체는 곧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자는 "직으로써 원한을 갚을 것"을 말하는데(『논어』「헌문」), 이것은 '직'의 본성이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민우: 공자는 '직'을 효의 도리로써 해석하기도 하지요.

송익필: 공자는 "우리 당의 정직은 이와 다르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그 속에 정직이 있다"(『논어』「자로」)라고 합니다. '직'이란 인륜의 기본인 효의 도리로서 '인'을 실천하는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자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인'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직'은 공평무사한 천도(天道)이면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인도(人道)가 되고, 또 사사로운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의 방법이 됩니다.

강민우: 또한 선생님은 성혼과 이이 사이에서 학문적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지요.

송익필: 저는 성혼과 이이의 사이에서 성리학·예학·경세관·출처의리, 그리고 수양 방법 등 실천적인 여러 면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교량적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두 사람이 물으면 제가 대답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고나 할까요. 『삼현수간』의 편지글을 분석해 보면, 성혼이 저에게 수기(修己)에 대해 질문한 편지가 4편, 성리에 대한 문답 글이 8편, 예법에 대해 질문한 글이 13편, 출처 의리에 관해 질문한 글이 15편, 경세에 관한 글이 3편, 윤리강상에 대한 글이 3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저와 이이가 주고받은 편지는 성리에 대한 글이 2편, 예학과 관련한 글이 4편, 경세에 관한 글이 8편, 출처 의리에 관한 글이 3편 있습니다. 대부분 성혼과 이이가 저에게 묻고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강민우: 이처럼 삼현은 학맥의 연원이 다르고 학문과 출처 의리와 신분,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서로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평생 변치 않는 우정을 지속하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가 일찍 죽기까지 30여 년 동안 그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학문과 수기 및 출처 의리와 경세 등 전반에 대해 격려하면서 우정을 지켜온 것입니다.

강민우: 그래서 삼현의 우정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여조겸·장식과 비유되어 국외에까지 흠모의 대상이 되어 후세 유학자들의 추존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21세기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9) 송익필의 학술적 공헌

강민우: 선생님이 옥중에 있을 때 한평이 찾아갔는데, 역시 단정히 앉아 있었으며 말과 얼굴빛이 태연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단정하고 바른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옥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참된 유학자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조헌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구하는 상소문에서 "송익필은 비록 송사련의 아들이지만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곧아 제 아비의 허물을 덮을 만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송익필: 우리 삼현은 학문적·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깊고 의리가 두텁습니다. 아끼고 걱정하는 정도가 보통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이이가 동인 측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저와 성혼이 적극 나서서 이이를 변호합니다. 성혼이 이이를 구하려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이이와 제가 성혼을 구해냅니다. 제가 천민이 되어 더할 수 없는 수모와 곤란을 겪고 전국으로 떠돌아다닐 때 성혼과 정철은 제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선합니다.

강민우: 이들은 모두 당대의 대유학자이지만 제각기 성품이 달랐다지요.

송익필: 세속의 영달에 뜻을 끊은 채 오직 수도자로서 큰 포부를 지녔던 송익필, 온화하고 모나지 않은 성품으로 원숙한 경륜을 보여주었던 이이, 다정다감한 천성으로 자연과 멋을 알았던 정철, 산림처사로 자처하고 선비의 본분으로 알았던 성혼의 기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구봉집』 권2)

강민우: 삼현은 일찍이 우정을 맺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하였다지요. '절차탁마'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송익필: 우리는 언제나 간곡하게 묻고 대답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견해나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며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보기 어려운 다정한 사이지만, 학문과 출처를 놓고는 "인(仁)이야말로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교유합니다.

강민우: 삼현의 학문 성향은 어떠했나요. 성혼과 송익필 선생이 원칙주의를 취하여 보수적 성향을 띤 데 비해, 이이는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지요.

송익필: 이이의 학문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순언(醇言)』·「학부통변발(學蔀通辨跋)」·「극기복례설(克己復禮說)」 등에 보이는 것처럼, 노장과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며 기학과 불교 등에도 널리 통합니다. 분석에서도 천재적 재질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아버지 성수침의 학풍과 이황의 함양을 중시하는 학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양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이이의 학문적 태도를 못마땅해하고,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기에 앞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너그러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성혼이 이이를 인정하면서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참된 유학자의 조건으로 여기는 이이가 학술 활동과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성혼의 비판이 강도를 더해갑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이이와 성혼의 학술 활동을 보면서 주로 제삼자의 위치에서 조정자 구실을 하였겠군요.

송익필: 이이와 성혼 모두 저에게 판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학문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한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경세에 대한 관점은 이이 쪽에 가깝지만, 출세의 길이 막혀 성혼처럼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선생님께 숨김없이 밝혔다지요.

송익필: 저와 성혼의 관계를 보면, 이이와 성혼 또는 이이와 저 사이에 비해 학문적으로나 출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호흡이 잘 맞는 편입니다. 이이와 성혼은 모두 저에게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는 중립적 관점을 지키면서 이들 이견의 조정에 힘씁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세 개의 솥발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설 수 없는 형국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이와 성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적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경세에 대한 식견이 높았지만,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겠군요.

송익필: 그래서 출처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을 일이 적었습니다. '출(出)'은 세상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른다는 뜻이고, '처(處)'는 집에 물러앉아서 벼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출처'는 세상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르든지, 아니면 물러나 집에 은거하든지 하는 진퇴를 가리는 말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이이와 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천의 측면에서는 성혼과 통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이가 궁리 공부에, 성혼이 함양 공부에 비중을 둔 데 비해, 저는 양자를 아우른 감이 있으므로 비판의 소지가 적었습니다.

강민우: ‘궁리 공부’는 외적 수양법으로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함양 공부’는 마음이 작용을 시작하기 이전의 고요한 상태에서 본성을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이가 지식 공부를 중시한 것이라면 성혼은 마음(수양) 공부를 중시한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다정하기 이를 데 없지만, 사사로운 인정과 의리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이는 저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한 나머지, 저의 부친 송사련이 죽었을 때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여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까지 써줍니다. 그러나 성혼은 저와 우정을 맺고 있으면서도 송사련의 불의를 미워하던 터라, 이이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율곡전서』「어록 하」) 게다가 ‘대서모론(待庶母論)’에서도 성혼은 이이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예를 그르쳤다”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이는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을 길러준 서모(庶母: 아버지의 첩)를 극진히 모십니다. 가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맏형수보다 윗자리에 서도록 합니다. 본처와 첩의 구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기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민우: 당시로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서모의 위치를 맏며느리보다 높인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마침내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에 저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 주가 되는 예의 준거에 따라, 본처에게 맞서는 혐의가 있다고 이이를 비판합니다. 명분에 따른 적서(嫡庶)의 분별에 중점을 두고 예법의 원칙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제가 서얼 출신이면서도 적서의 구별을 고수하려 한 것은 종법 질서의 확립에 대한 소신 때문입니다.

강민우: 이이는 학문을 하면서 독자적인 견해를 다수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성혼과 선생님이 비판했다지요.

송익필: 저술보다 함양을 중시했던 우리가 이이에게 비판 받는 것은 주로 출처 문제 때문입니다. 성혼과 저는 이이가 저술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헌적 근거보다도 자신의 견해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혼은 저에게 부탁하여 이이의 저술에 대해 비판해 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강민우: 『격몽요결』·『소학집주』·『순언』 등 이이의 주요 저술들이 거론되었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격몽요결』을 간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이에게 “속례(俗禮)와 관련된 부분은 불만이 많으며, 필요 없는 글자를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자제들에게나 보도록 할 것이고, 널리 알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또 『소학집주』의 간행 소식을 접하고는 “『격몽요결』처럼 서둘러 간행하지 말고 충분히 상의한 뒤 펴낼 것이며, 수집한 역대 주석에 미진한 곳이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순언』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정도가 심합니다. “이이가 직접 엮은 『순언』 한 질을 보았다.……기이한 것을 굴복시키고자 하면서도 도리어 그와 같았다. 또 주석은 견강부회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강민우: 이에 이이는 "『격몽요결의 잘못을 지적해준 것은 매우 수긍이 가는 곳이 있으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소학』도 마땅히 형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여, 성호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경세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는 선조 임금을 잘 보필하면 하나라·은나라·주나라 삼대(三代)와 같은 이상적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이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한 데에는 벼슬이나 명성이 높지 못한 집안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한 듯합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도통의 정맥을 이은 훌륭한 가문으로, 집안 선조인 성삼문이 화를 당하거나 조광조의 수난을 거울로 삼아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삼가고 초야에서 수양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깁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출신 성분이 일생토록 멍에가 되었지만, 경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각별하였다지요.

송익필: 저는 자신의 이상을, 이이를 통해 달성이라도 하려는 듯, 이이에게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선유 가운데 조광조의 경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추앙합니다. 또 그의 지치(至治) 이념을 계승하여 삼대의 이상 정치를 당대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이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큽니다. 저는 이이가 대제학이 되었을 때 편지를 보내어 삼대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이이의 시국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낌없이 비판하였다지요.

송익필: 학문적 성숙이 요구될 때도 벼슬에서 물러나 수양을 더 쌓으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남들에게는 주제넘은 처사로 비치기도 했겠지만, 저는 물론 이이나 성혼도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이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렸을 때, 제가 이이와 성혼의 배후에서 일을 조종하는 자로 지목을 받아 동인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이이가 정치적으로 여당의 위치에 있었다면, 성혼과 송익필 선생은 야당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경세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지나 않을지 근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이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말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이가 성혼의 말보다도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이의 현실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이가 경세에 대한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강민우: 성혼도 이이를 꾸짖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송익필: 성혼도 이이의 경세에 대한 의지와 식견을 인정합니다. 때로 이이에게 힘을 실어주

기도 하고, 때로 조언도 하며 비판도 합니다. 이이가 재상의 물망에 올랐을 때는 저에게 부탁하여 “이이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가 시류를 따르는 재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학인 장유(張維)는 “선배들이 서로 일깨워 주는 도리를 접하노라면 정말 존경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지요.

강민우: 이이는 현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는 데 비해, 성혼은 대체로 이와 상반된 인식을 했던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때를 보아 일을 추진하지 않고 무모하게 서두른다고 비판합니다. “이이는 변통을 좋아하는 것이 큰 병통이다.” “지금의 비방하는 말은 이이 자신과 외부 사람이 그 잘못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 이이가 비판받는 이유가 변통을 좋아하고 무모하게 일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성혼은 나에게 계속해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고집이 너무 센 것 같다. 수많은 백성이 물이 새는 빈 배에 있으며, 그들을 구제할 책임은 실로 나에게 있다”(『구봉집』 권5)라고 하여, 성혼이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강민우: 성혼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불만의 뜻이 컸다지요.

송익필: 저는 성혼의 경륜과 학문을 무척 아끼고 존중합니다. 제가 동인들에 의해 거의 집안이 망하는 화를 당하였을 때 돈을 모아 천민의 신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저에 대해 불만의 뜻이 없지 않았는데, 예컨대 포부가 크고 성격이 소탈하여 세세한 것에 소홀한 점이라든지, 남을 이기려는 승부욕이 있는 점, 필요 이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점 등은 성혼이 불만으로 여긴 것들입니다.

강민우: 반대로 이이와 송익필 선생도 성혼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지요.

송익필: 이이와 저는 학문과 경세의 역량을 갖춘 성혼이 “출처 진퇴는 오직 의(義)에 있다”라고 하면서, 초야에 머물면서 홀로 그 몸을 보존하는 것을 의리로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이는 성혼을 정계로 불러내기 위해 자신의 봉록을 타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도 시국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출사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성혼이 초야의 선비로 묻혀 지내기엔 너무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이나 숙고하고도 출사에 대한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성혼에게 “성혼은 전에 없는 특수한 예우를 받았음에도 안일만을 도모하십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앞일을 예단하지 마시라”고 충고합니다.

강민우: 그렇지만 동서 당쟁이 고조되던 1583년에는 “시국 상황을 생각할 때 출사하여도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될 때 이이와 같이 될까 걱정이다. 오늘날 성혼만이 절개를 온전히 한 흠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출사를 만류한 적도 있다지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성혼은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는 것’을 의리로 삼아 산림에 은거하면서 몸을 보존하는 철학을 생활화합니다. 이는 그의 시국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현실은 동서 당쟁으로 그 몸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혼의 판단입니다. 성혼은 학문상으로나

건강상으로 “나 자신도 돌볼 겨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성혼은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로 다시는 의리를 구실로 도망칠 수 없지만, 여전히 물러나 웅크릴 계책만 품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강민우: 그런 생각은 송익필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선조의 부름을 받은 성혼이 “초야에 묻힌 사람은 언제나 물러나는 것이 의리이다. 이때 와서 갑자기 정사를 논하는 것은 처신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남의 비방을 막는 방법은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죠.

(10) 송익필의 후대 평가

강민우: 이이와 성혼 사이에는 ‘사단칠정논변’ 이외에도 크고 작은 학술적 논변이 많았다죠.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는 학술상의 교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로 성혼이 질문을 하고 또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혼의 송곳 같은 비판과 질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에 알려지기는 온순하고 공손한 성혼이 이이의 주장에 대체로 따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혼은 이이 이상으로 자신의 견해와 소신이 뚜렷합니다.

강민우: 먼저 ‘사단칠정논변’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논변 태도는 어떠했나요.

송익필: 1572년(선조 5년)에 시작된 이이와 성혼 사이의 ‘사단칠정논변’은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정논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황과 기대승 간의 ‘사단칠정논변’에서의 남은 쟁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따라서 논변이 깊이를 더했음은 물론입니다. 성혼과 이이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변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성혼이 이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가르침을 청하는 형식입니다. 겸손하고 공손한 그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 이이는 성혼에게 스승이나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를 가르치듯 장황하게 자기의 이론을 전개합니다.

강민우: 전반적으로 성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이는 ‘자기가 옳고 성혼이 그르다’라는 식으로 공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이이는 성혼을 대화나 논변의 한 축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이이의 설을 성혼에게 설파하여 따르기를 강요한 인상이 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겸손하기 짝이 없는 성혼으로서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너무 업신여긴 듯하다”라는 성혼의 지적을 받고, 이이가 깊이 사과한 적도 이 때문입니다.(『율곡전서』 권10) 성혼의 설을 재음미하고 이것을 자신의 성리설에 수용한 김창협 같은 이조차도 “이이가 끝내 성혼이 의심하는 것을 풀어주지 못했다”(『농암별집』 권3)라고 하여, 논변이 시종 이이 위주로 전개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강민우: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송익필: 매사를 겸양으로 일관하던 성혼의 학문 태도, 그리고 사단과 칠정의 이기론적 해석과 같은 사변적인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성혼의 생각을 살피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대화 형식만 보고 대등한 논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혼은 마침내 이이의 설을 일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자기식의 새로운 사유 체계를 수립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성혼의 설은 이이의 설과 함께 조선 후기 성리학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 것이군요.

송익필: 이이의 설은 대체로 기대승의 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성혼의 설은 이이의 설을 인정하면서도 이황이 말한 주리·주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둘을 절충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혼의 이기일발설(理氣一發說)은 후일 이황과 이이의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되어 퇴계학파나 율곡학파 후학들에게 다 같이 불만의 표적이 됩니다. 퇴계학파는 호발이 아닌 '일발(一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율곡학파에서는 최대 금기어인 '이발'을 인정했다는 데서 만족할 수 없다는 합니다.

강민우: 학문적 성향으로만 본다면, 이이와 성혼의 후학들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이이의 경우 자신의 후학들이 집권하여 학파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정작 그 원조인 이이의 사상으로부터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이는 『중용』·『통서(通書)』에서 성(誠)을 철학사상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성'은 이이의 전 사상 체계를 일관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성' 사상은 '경'을 주로 하는 이황과 성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이의 제자 김장생은 스승이 실천에서 지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문(博文)·약례(約禮) 두 가지는 유학의 학문에서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이는 늘 이 점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내가 보건대, 이이는 '박문'에는 공이 많지만 '약례'에는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사계유고』 권10)

강민우: 이이의 후학들 사이에서도 약례(또는 함양) 공부가 이이 학문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지만, 도리어 학문적으로는 그 후학들에 의해 그 사상과 학파적 전통이 비교적 잘 계승됩니다. 이이가 체계화했던 무실(務實: 실속에 힘씀) 학풍 역시 그 직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혼계열의 윤선거·윤증 부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또 이이 직계가 조선 후기의 정계와 사상계를 경직되게 운영한 데 비해, 성혼 학통을 이은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병자호란의 대응 문제를 두고 싸우자는 척화(斥和)와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화(主和)의 사이에서, 최명길의 주화론은 일찍이 성혼이 조정에 주청했던 대왜강화론(對倭講和論)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민우: 최명길은 성혼의 '강화론'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지요.

송익필: 김장생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이의 직전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박문'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을 바탕으로 '약례'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박문 쪽에 비중이 있는 이이와의 학문적 차별성을 넌지시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장생은 박문보다 약례를 중시한 성혼의 학문체계를 이어받아 그것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예학으로 끌어올립니다. 더욱이 저의 철학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직(直) 사상은 김장생·송시열에게로 계승되어 그들의 사상적 핵심을 이룹니다. 저의 사상적 결정체는 '직' 사상입니다. 이 '직' 사상은 김장생에게 계승되는데,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김장생의 학문은 오로지 '직'이라는 한 글자로서 마음의 요법을 삼는데, 이것은 주자가 세상을 떠날 때 문인에게 준 처방이다." (『송자대전』 권131) 송시열은 김장생에 의해 계발되고 주자 임종 시 유언에서 강조했던 '직'을 유학의 핵심 사상으로 그 사상체계를 수립합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기호학파의 사상적 맥락은 선생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요.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이 지대함에도 김장생·송시열 등은 자신들의 학통을 정치적·학문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이이에게만 연결한 것이네요. 이것은 무엇보다 선생님의 신분이 미천한 데다 아버지 송사련의 허물이 너무 컸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기호학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결코 지나쳐 볼 수 없겠군요.

송익필: 저를 그렇게까지 평가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불우한 역경에서도 학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조선 유학의 대학자로 성장합니다. 특히 선생님은 예학에 밝아 이이·성혼도 선생님의 학문적 경지를 높이 평가하고, 「태극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리학에 있어서도 심오한 경지를 개척합니다. 특히 예학에 능통하여 당대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학계의 정평이 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의 문하에서 '동방 예학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장생이 배출됩니다. 이어서 김집·송준길·송시열·이유태(李惟泰) 등 기호 예학을 배출함으로써 조선조 예학의 선구적 위상을 평가받기에 이릅니다.

송익필: 예학에 관한 저술로는 조선 최초로 관례·혼례·상례·제례의 네 가지 예를 모두 갖춘 『가례주설(家禮註說)』과 예에 대해 묻고 대답한 「예문답(禮問答)」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 취대를 통해 저와 이이·성혼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를 모아 『삼현수간』을 편찬하기도 했지요.

강민우: 또한 공자와 맹자를 거쳐 주자에게 계승된 '직' 사상은 마침내 선생님에 의해 크게 드러나서 김장생에게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송시열에게 전승되어 송시열 의리 사상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죠.

송익필: '직'은 의리의 원천으로 예(禮)를 통해 현실사회에 구체화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며, 이를 통해 본성에 맞는 삶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인간 본성의 근원을 천(天)에서 찾고, 그 '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와 천이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리는 반드시 밖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는 예를 통해 구현되고, 예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의 원리이며 선의 덕목을 의미한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그래서 주자는 예의 본질을 '천리의 절문(節文)이요 인사의 의칙(儀則)이다'고 말합니다. 이는 천지에 내재하는 절대불변의 법칙이 인간의 예를 통해 실현되고, 예는 인간사의 의칙이 되어 천리와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리는 예의 근거가 되고 예는 성리의 실천적 방법이 됩니다.

강민우: 많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큰절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익필: 저도 학생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참고문헌>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배상현, 「구봉 송익필의 생애와 시문학」, 『애산학보』5, 애산학회, 1987.
최영성, 「우계와 구봉 송익필-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우계학보』30, 우계문화재단, 2011.
김창경, 「고청 서기와 구봉 송익필 선비정신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동서철학연구』80, 한국동서철학회, 2016.
황의동, 「기호유학의 산실 坡州와 三賢」, 『우계학보』36, 우계문화재단, 2019.